



이슈를 잡아라

이수그룹, 업사이클링으로 전하는 메시지

이수 플레이리스트

내 고막을 책임져 줄 인생 음악 공유해 줘!

이수 튜브

가을밤 오디오북으로 깊어지는 시와 소설

이수 테이블

보약 능가하는 바다의 보석, 굴과 새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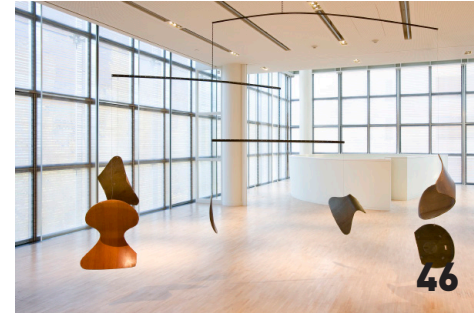
스페셜 리포트

우주건설과 이수인의 꿈꿀 권리

ISU PLACE

도시 풍경의 이면을 조명하는 <도시의 수집가들>

CONTENTS



COVER STORY

도시 풍경의 다양한 이면을 조명하는 <도시의 수집가들>(7제) 전이 오는 12월부터 스페이스 이수에서 개최된다.



04 Focus & News

08 Young ISU

공채 28기 신입사원 25명을 소개합니다

14 이슈를 잡아라

이수그룹, 업사이클링으로 전하는 메시지
세계에 알리는 무대 - 뉴욕 패션위크

20 커뮤니케이션 Talk

이수인들의 속 시원한 카운슬링

24 이수 플레이리스트

내 고막을 책임져 줄 인생 음악 공유해 줘!
김혜만 사원(주)이수 DT팀)
이홍휘 사원(주)이수 AMC 관리팀)
하철호 대리(이수페타시스 연구1팀)

28 이수타그램

사진과 해시태그에 담긴 아름다운 추억들
박신영 사원(이수시스템 사업혁신팀)
윤유리 사원(이수페타시스 공무팀 설비파트)

30 이수튜브

가을밤 오디오북으로 깊어지는 시와 소설

36 이수 테이블

스토리쉐프가 차려내는 식탁
보약 능가하는 바다의 보석, 굴과 새우

40 스페셜 리포트

이수인의 심폐 확장 이슈
우주건설과 이수인의 꿈꿀 권리

46 ISU PLACE

도시 풍경의 이면을 조명하는 <도시의 수집가들>

49 컬러링 테라피 갤러리

컬러링 응모작 소개

50 컬러링 테라피 및 엽서

본지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 모든 자료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수그룹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해당 필자들의 견해이며, 이수그룹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수그룹 계간 사보 2022년 가을호 통권 110호

발행일 2022년 10월 17일

발행인 김상범

발행처 ㈜이수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84

총괄진행 김현중 02-590-6819

사보기자 이수화학(김완화·신기연) 이수페타시스(이준경·한수진) 이수건설(한수진) 이수시스템(김용훈) 이수창업투자(김경문) 이수엠지스(양예슬) 이수엑스캠(박준범) 이수AMC(이홍휘)

제작디자인 LEE & LEE work shop 기획실장 이신우, 디자이너 유선영

인 쇄 LEE & LEE work shop

※이수그룹 사보는 친환경 FSC인증 펄프로 만든 용지를 사용해 제작합니다.

FSC인증은 국제산림관리협회가 만든 친환경 인증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종이와 상품에 부여됩니다.

(주)이수



K업사이클링으로
세계시장 출사표...

이수그룹은 국내 업사이클링 브랜드 얼킨(ULKIN)과 함께 건설 현장에서 폐기되는 수직 보호망을 업사이클링 해 친환경 패션 가방 토트백, 호보백, 백팩 등을 제작, 세계적 패션쇼 중 하나인 2023 SS 뉴욕과 파리의 패션위크에 선보여 크게 주목받았다. 국내 업계 최초로 시도한 폐기물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세계적인 무대를 통해 업사이클링의 새로운 관점과 가능성을 열었다. 향후 다양한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주)이수



스트릿 감성 브랜드로
기업 콜라보 굿즈
전시회 참여

이수그룹은 지난달 28일까지 한남동 블루스퀘어 소담상회 네모에서 열리는 '오브젝트 바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 프로젝트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선호하는 인기 콜라보 굿즈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다. 이번 행사에 선보이는 굿즈들은 온라인 브랜드를 '이수엑스몰'에 출시된 제품들로 팝아티스트 'GANZ' 및 업사이클링 브랜드 '누깍'과 협업한 굿즈들로 이수그룹 슬로건이 담긴 머그컵과 골프공, 그래피티 스티커 부착이 가능한 안전 헬멧, 재활용지를 활용한 친환경 노트 등이다.

이수화학



희성촉매와 MOU,
올 들어 세 번째 체결

이수화학은 8월 희성촉매와 전고체배터리 개발 상호 협력을 위한 포괄적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희성촉매는 국내 최초로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를 생산한 기업으로 최근 연료전지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극촉매를 개발하는 등 친환경 관련 소재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MOU는 올 들어 세 번째 황화리튬 관련 협약이다. 이수화학은 잇따른 MOU 체결을 통해 황화리튬 수요 및 잠재 고객을 확인한 만큼 신규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수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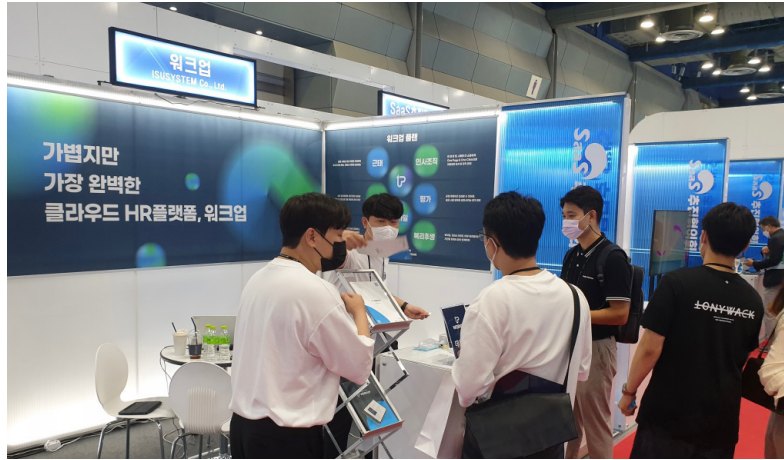


서울 목동
가로주택정비 사업 수주

이수건설은 지난 7월 4일 서울 목동 557번지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수주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 557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10층, 공동주택 2개동 85가구(임대 18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앞으로도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재건축은 물론 민간 및 공공 가로주택정비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좋은 성과를 낼 계획이다.

이수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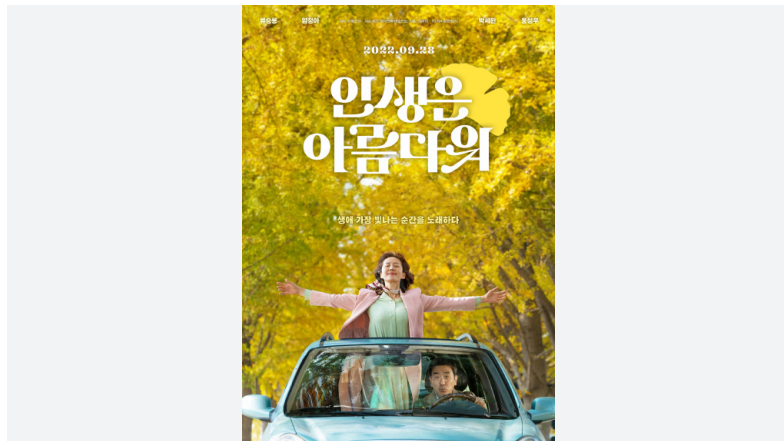
HR플랫폼
워크업(WORKUP)으로
4차 산업혁명
전시회 참가



이수시스템은 지난 9월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 2022’에 참가해 HR플랫폼 워크업(WORKUP)을 선보였다. 워크업은 500개 이상 기업의 HR솔루션 구축 경험을 토대로 인사관리엔 꼭 필요한 기능 50가지를 담은 클라우드 HR플랫폼이다. 이어서 모바일 버전의 워크업이 HR컨설팅과 엔터프라이즈 플랜까지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 기존 온프레미스(On-premise, 내부구축형) 대비 도입 비용과 서버 관리 부담을 줄여 다양한 형태의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수창업투자

뮤지컬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이수창업투자가 올가을 개봉 영화 한 편을 소개한다. <국가 부도의 날>을 연출한 최국희 감독의 신작으로 류승룡, 염정아 주연의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는 자신의 생일 선물로 첫사랑을 찾아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한 아내와 함께 전국을 누비며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흥겨운 리듬과 멜로디로 우리의 인생을 노래하는 국내 최초의 주크박스 뮤지컬 영화다. 주크박스 뮤지컬이란 왕년의 인기를 누리던 대중음악을 가져다 다시 극적 형식과 열개를 엮어 무대용 뮤지컬로 재활용한 일련의 작품들을 말한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사랑은 비를 타고(Singing in the Rain)>, <맘마 미아(Mamma Mia!)> 등이 있다.

이수앱지스

고셔병 치료제, 애브서틴
알제리 140억 규모
공급 확정



이수앱지스는 알제리 중앙병원약제국(Pharmacy Central Hospital, 이하 PCH)과 최대 140억 규모의 고셔병 치료제 '애브서틴'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PCH는 알제리 내 모든 국/공립 병원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을 조달하는 단독 기관이며, 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 공급사를 선정한다. 이 입찰에서 이수앱지스는 고셔병 치료제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경쟁 약품을 제치고, 1위 낙찰 제약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본 계약은 확정 계약 금액이 약 93억 원 이고, 최대 140억 원 규모의 의약품을 공급하는 계약이다.

이수앱지스

팜캐드와 AI 활용
희귀질환 신약 공동연구
계약 체결



이수앱지스는 신경섬유종증(Neurofibromatosis) 치료제 개발을 위해 AI(인공지능) 신약 개발기업 팜캐드와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이수앱지스는 팜캐드로부터 연구 중인 타깃 단백질에 작용하는 화학구조 디자인을 제공받게 된다. 팜캐드는 내부 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약물 후보군을 찾고, 이수앱지스는 화합물의 합성 및 효능 입증을 진행하는 공동 개발 구조다. 신경섬유종증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기존에 1개의 치료제가 있으나 제한적 효과와 여러 부작용에 따라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높은 질환으로 꼽힌다.

날아올라라 높게, 도약대에 선 그대!! 공채 28기 신입사원 25명을 소개합니다.

에너지 발랄한 새내기 사원들의 이 푸릇푸릇 기운을
고스란히 지닌 채 생동하길 바라는 마음 반,
톤 다운 거처 반듯하게 스며들기 바라는 마음 반...
그대들 반짝이는 꿈과 이수그룹의 빛나는 비전이
만나는 지점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열정의 스파크가 일어나길...
마주치는 눈길마다 그런 바람을 담아
환영의 미소와 격려의 온기를 나누는 마음이다.

이수화학

구창건 사원

나슬 사원

허재석 사원

김정환 사원

윤승주 사원

양영철 사원

이선규 사원

고광일 사원

이성훈 사원

Challenge the Future
Share the Future 비전을
실천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이수와 함께 성장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훌륭하신 선배님들
뒤를 따라
능력 있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Share the future,
이수와 함께
나은 미래를
공유하겠습니다.

뛰어난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내일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엄마, 나 사보 나왔어!

정수진 사원

페타를 이끌겠습니다!

이영우 사원

내가 이수의 왕이다!

강성진 사원

이수야, 내가 왔다!

도지은 사원

이수만 한 회사 없다!

김규림 사원

이수이수 파이팅!

이은우 사원

사랑합니다 사장님,
사랑해요 페타시스!

한창민 사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사무엘 사원

이수건설

기본에 충실하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일호 사원



이수건설 화이팅!
설계팀 화이팅!

박성민 사원



28기 파이팅!
나도 파이팅!

권나영 사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건설 파이팅!

조지안 사원



신입사원의 패기로
열심히, 재미있게
하겠습니다!

구기훈 사원



이수앱지스

자랑스러운 이수인이
되었습니다!
28기 화이팅!!

조하은 사원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이수인이 되었습니다!

이정연 사원



28기 여러분 모두에게
반짝반짝한 미래가
펼쳐지길~

곽은지 사원



지구에 켜진 빨간 불, 응답하는 기업 이수그룹, 업사이클링으로 전하는 메시지

3년째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지구환경을 둘러싼 위기감은 지구촌의 가장 목직한 이슈다. 이수그룹에서는 건축 폐자재를 활용한 패션 제품을 제작, 글로벌 패션 중심지인 뉴욕과 파리 등에 선보였다. 최근 이상 기후로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커짐에 따라 지속 가능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방점을 찍으며 업사이클링을 통한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렸다.



폐기물로 망가진 지구의 폐, 업사이클링으로

지구 환경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고 있다. 전인류 차원에서 발목이 잡힌 작금의 팬데믹 또한 지구가 보내는 적신호로 인지하고 있는 국제사회는 지구 생명에 심폐 소생을 방불하는 특단의 처방을 찾고 있는 중이다. 뜻있는 개인과 기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실천하고 있다. 그 대표적 활동으로 업사이클링(Up-cycling)이 있다. 이는 버려지는 물건에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의 활동을 거쳐 새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것을 말한다. 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것을 수선해 재사용하는 리사이클링의 상위 개념으로, 더 나은 가치를 더해(Upgrade) 전혀 새로운 제품으로 재생, 재활용(Recycling) 하는 것을 아우른다.

건설 현장 폐기물, 패션 아이템으로

이수그룹은 서스테이너블 디자인 브랜드 '얼킨(ULKIN)'과 서울시 디자인 전문 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과 함께 기업 미션의 실천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을 해냈다. 건설 현장에서 버려지는 폐기물을 업사이클링 한 친환경 패션 가방 토트백, 호보백, 백팩 등으로 재탄생시켜 세계적 패션쇼에서 선보여 크게 주목받았다. 업사이클링 소재는 이수건설에서 공사 현장 내 철골구조물에서 낙하물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수직 보호망(PVC-MESH)으로 내구성과 난연성이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다. 해당 소재로 업사이클링을 시도한 것은 이수그룹이 업계 최초다.



이수그룹의 업사이클링 백을 착용하고 런웨이를 걷고 있는 아이콘(IKON)의 멤버 동혁

NEW
YORK
FASHION
WEEK

이수인의 가슴에 탑재한 지구환경 이슈

이수그룹은 1997년 환경경영시스템 관련 국제 인증을 득한 이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경영이념 실천의지를 보여왔다. 그 일환으로 체계적인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은 물론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환경오염 방지 등 새로운 환경가치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 이번 프로젝트는 폐자재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로젝트를 총괄해서 지휘한 혁신전략담당 김세민 전무는 “이수그룹이 뉴욕 패션위크라는 세계적인 무대를 통해 업사이클링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프로젝트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에 알리는 무대 - 뉴욕 패션위크

이번에 참가한 뉴욕 패션위크(New York Fashion Week)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미국 최대의 패션 행사이다. 전 세계 주요 패션 업체들이 모여 매년 2월과 9월, 7~9일간 진행된다. 런던 패션위크, 밀라노 패션위크, 파리 패션위크와 함께 4대 패션위크 중 하나이다. 초대받은 사람에 한해서 쇼를 관람할 수 있으며 패션 에디터, 소매점 바이어, 패션 블로거, 디자이너의 친구나 고객, 유명 인사들이 주 관람자이다. 그만큼 다양한 계층이 참석하면서 참여업체를 향한 주목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날 패션쇼 현장에는 다양한 셀럽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아이돌 그룹 아이콘(iKON)의 멤버 동혁이 이수그룹의 업사이클링 가방을 직접 착용해 패션 관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총지휘한 혁신전략담당 김세민 전무



아이콘(IKON)의 멤버 동혁이 착용한 업사이클링 백



'UCYCLE'

환경을 보호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당신이다



얼킨과 함께 제작한 백은 수직보호망 본연의 컬러를 살리면서도 트렌디하고 하이엔드 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수그룹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UCYCLE'

이 행사는 '지속 가능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방점을 찍으며 업사이클링을 통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최근 이상 기후로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친환경적인 의미와 더불어 트렌디하고 하이엔드 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한다.

캠페인 타이틀인 '유사이클(Ucycle)'은 대중을 뜻하는 'You(U)'와 폐자원을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킨다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의 합성어로, '환경을 보호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당신이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1회성 이벤트 아닌 네버엔딩 스토리로

이수그룹과 얼킨이 제작한 업사이클링 제품은 뉴욕에 이어 10월 초에는 '2023 SS 파리 패션위크'에서도 선보였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패션 행사인 '2023 SS 서울 패션위크'에도 함께 한다. 이번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는 올해 초반부터 시작하여 제품화하기까지 수개월 동안 열정적인 협업의 결실로 향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의 콜라보를 통해 상품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이수그룹이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순환에 앞장서는 캠페인은 계속될 예정이다.

이수인들의 속 시원한 카운슬링



낮은 것들은 더 낮게 내려앉고 높은 것은 더 높게 제 자리를 잡는 가을 한가운데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지? 싶을 때,
순간의 문제들을 명쾌하게 풀어 이수인의 체온을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때로는 동료가 동료에게 넉넉히 묻고 꼭 집어 답을 주는 커뮤니케이션.
서로에게 어깨를 대주고 마음을 내어주는 사이다 상담소! 함께 귀 기울여 볼까요?

Q

요즘 기온이 내려가고 일찍 어두워지면서 퇴근 후 부쩍 친구들이 생각나네요. 오랜만에 집에서 편하게 보면 좋겠다 싶은데 좀 색다른 이벤트로 요리를 해서 나눌 만한 게 있을까요?

신동완 과장
(주)이수 오픈이노베이션팀

A

류요선 사원
(이수시스템 HR사업팀)



신동완 과장

안녕하세요? 그동안 못 만난 친한 친구를 집에 초대해 가벼운 셀프 요리로 한잔 곁들인 저녁을 하고 싶은데요. 집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이색 외국 요리가 있으면 레시피 좀 알려 주세요.

류요선 사원



전에 자취생활을 할 때 자주 만들어 먹었던 간pong두부 요리가 생각나네요.



신동완 과장

그거 끌리는데요, 근데 어렵고 복잡하면 자신 없는데...

류요선 사원



아주 간단해요. 비주얼은 물론 맛도 좋아서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재료는 두부 1모에 대파, 색색 파프리카나 청양고추, 양념으로는 굴소스, 식초, 진간장, 설탕, 고춧가루, 다진 마늘 이게 다예요.



신동완 과장

말씀하신 재료만으로도 좀 도전할 만하네요. 그럼 본격 레시피도 들어볼까요?

류요선 사원



일단 두부를 한 입 크기의 주사위 모양으로 썰어서 밀간을 한 후 키친타올 위에 펴서 물기 빼고 전분가루를 묻혀줍니다. 그리고 물과 굴소스, 식초는 2스푼, 나머지는 1스푼씩, 이 모두를 잘 섞으면 양념 끝.

그다음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준비한 두부를 노릇노릇 튀기듯 부칩니다. 여기에 양념을 넣고 뒤적이며 국물이 없어질 때까지 줄인 다음 불을 끄고 다져 놓 아채 넣고 골고루 섞어 접시에 내면 됩니다.



신동완 과장

설명만 들어도 군침 도는데요. 일단 눈으로 먹는 요리로도 한뼉 단단히 하겠어요!

류요선 사원



레시피도 간단하고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라 부담 없는 요리입니다^^ 혼밥 반찬으로도 딱 좋고요. 소시지를 섞어 줄임을 하면 색감도 식감도 훨씬 풍성하죠. 근사한 시간 되시길요.

Q

금리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요즘, 현명한 재테크가 절실한 구간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유용한 재테크 방법을 알고 싶어요.

김수일 대리
(이수앱지스 경영지원팀)



김수일 대리

요즘 매일 갱신되는 금리 문자는 정말 무서워요. 단기간 내에 저금리로 돌아설 분위기는 아닐 듯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재테크에 임해야 할 텐데 좀 막연하네요.

방영현 대리



주식, 펀드, 금, 외환 등 많은 재테크가 있지만 진입장벽도 높고 선택지 들어가기도 어렵죠. 그런데 솔직히 지금처럼 변동성 높은 시장은 고금리 적금을 바탕으로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옵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김수일 대리

그렇다고 금여동장에 가만히 넣어두는 것도 불안하죠. 다른 이들은 건기라도 하고 있는데 나만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

방영현 대리



혹시 은행 오픈런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행 별 미끼상품인 고금리 적금 가입을 위해 은행 오픈 시간에 맞추어 줄을 서는 건데요. 포털사이트에 실시간 이벤트나 각 금리 비교 사이트를 등 을 찾다 보면 많게는 6~8%까지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고배당으로 유명한 맥쿼리인프라, JB금융지주, 여타 세컨더리펀드 등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인데 위험부담은 거의 없죠.

A

방영현 대리
(이수엑사캠 글로벌영업팀)



김수일 대리

그런 게 있었군요. 은행 정보를 위해 그만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하는 것도 부담되는 일이긴 하네요.

방영현 대리



아니면 이번 기회에 차를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GV80, 쏘렌토 하이브리드 등 감가율 좋은 차량은 1년 감가율이 98%가 넘어요.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거의 1년 기름값까지 벌고 되파는 수준이죠. 최소한... 차라도 건지는 셈이니까요.



김수일 대리

그것도 생각해 봐야겠어요. 확실히 재테크는 정보력이라는 말 실감 나네요.

방영현 대리



정보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실행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Q

이제 날씨가 쌀랑해지고 공기도 차가워지는 철이다 보니 한 해가 다 간 느낌이에요. 지금이라도 단풍 구경 가기 좋은 스팟 좀 추천해 주세요.

김혜진 대리
(이수페타시스 품질보증팀)



김혜진 대리

벌써 3년째 접어든 코로나 시국에 심신의 균형을 너무 방치하고 사는구나 싶네요. 올가을은 제 맘 건강도 정서관리도 좀 살펴주려고 해요. 이번 단풍은 꼭 놓치지 말아야겠어요.

박지희 사원



그렇죠. 특히 단풍철을 놓치면 한 해를 다 놓친 느낌이죠. 더군다나 단풍 구경은 몸과 맘을 함께 청소해 주는 연례행사거든요.



김혜진 대리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긴 해도 훌쩍 나서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만해도 단풍 명소로 설악산 속리산 등등 품고는 있지만.. 주말 하루 가까운 서울 근교이라도 다녀오고 싶어요.

박지희 사원



공감이에요. 그렇다면 북한산 우이령길 석파정을 추천합니다. 긴 산책길을 따라서 단풍나무가 짙 이어져있어서 부담스러운 산행이 아니라 느긋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A

박지희 사원
(이수시스템 전략사업팀)



김혜진 대리

아하, 근데 거기 들어만 봤지 못 가봤어요. 서울 근교라 사람들이 너무 많진 않을까요?

박지희 사원



그건 걱정 마세요. 하루 입장 인원 1,000명으로 제한해 여유롭게 단풍을 즐길 수 있어 강추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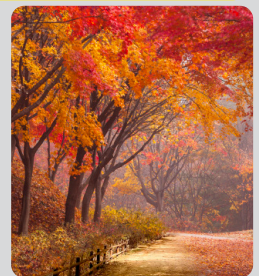
김혜진 대리

입장인원에 제한이 있다고요? 그럼 예약을 해야 하는 건가요?

박지희 사원



사전예약은 국립공원 예약 시스템(reservation.knps.or.kr)을 통해 할 수 있고 입장료도 무료랍니다. 이번엔 꼭 시도하셔서 좋은 시간 가져보세요!





내 고막을 책임져 줄 인생음악 공유해 줘!

누구나 한 곡 정도는 인생 명곡이 있게 마련이다.
기분 좋은 순간 기쁨을 배가시켜 주는 노래, 운치 있게 눈 내리는 날 감성을 한껏 자극하는 노래 그리고 행복했던 추억을 생생하게 되살려주는 노래까지. 우리의 고막을 책임져 줄 이수 가족들의 인생 음악을 들어볼까?



서늘한 몽환이 서린 우주적 사운드

김혜만 사원 | (주)이수 DT팀

그룹 Digital Transformation 소속으로 현재 3개 주 요사 DT 및 RPA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LA에 살다가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프로 듀서 Moon Kyoo가 Anjunadeep 레이블을 통해 리믹스 트랙을 발매했다는 정보를 접했을 때 신에 처럼 나타난 첫 한국인의 곡이라 관심이 많이 갔습 니다. 모듈러 신디사이저를 이용한 Chill 한 멜로디가 매 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특히나 투명하고 몽롱한 사운드와 살짝 씩씩진 노이즈에 중후반부 멜로디 가 점점 고조되는 부분이 가장 좋은 파트라 생각됩 니다. 지금 여기가 아니라 음악에 감겨있는 동안은 우주적 존재 같은 다른 공간감을 누리는 마력이 있 답니다.

comment

음악에서 감지하는 5감의 조화는 가사 내용을 뛰어 넘어 심장에 직진합니다. 지구별 주민이라면 피할 수 없는 시련과 그 길목을 지나 마주하는 기쁨이나 안도가 말보다 그림보다 공기로 전해지는 음악들... 온전히 제가 느끼는 사적 감상일 수 있겠지만요.

Between the Suns
Moon Kyoo

Anjunadeep Explorations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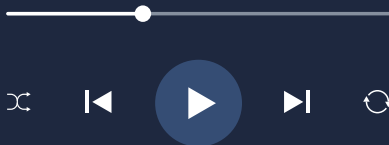
.....

나만의 추천 명곡 리스트

- Touch - Big Wild
- Demons (feat. Sophia Bel) - Jerro
- Marion - Beacon
- Another Riff For The Good Times - Yotto
- Late Night (Solomun Remix) - Foals

Music / Words / Pick up the Phone

F.R. David



나만의 추천 명곡 리스트



I go
럼블피쉬



Smile Again
럼블피쉬



으라차차
럼블피쉬



예감 좋은 날
럼블피쉬

온전한 나만의 배터리 충전의 시간

이홍희 사원 | (주)이수 AMC 관리팀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며 하루를 꽉 차게 보내는 워킹맘입니다. 퇴근하면 아이를 돌보고 아이가 잠들면 그제야 집안일을 시작하죠. 다 끝나면 12시가 넘기 일쑤지만 그때 잠시 소파에 앉아 음악을 듣는 그 짧은 시간은 하루 중 온전한 내 시간, 잠깐의 휴식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면의 배터리 충전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는데 말로 전하기 어려운 심경을 노래한 Words, 음악이 나를 슬프게 한다는 가사의 Music, 기타 연주 실력도 만만찮아서 심플한 가사의 매력 이상의 끌림이 있습니다. 확실히 음악은 만국 공용어임을 실감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가사에 꽂힐 때 그 음악의 농도는 급상승하죠. 특히 소화력 좋은 뮤지션의 연주나 노래는 가사를 능가하는 표현력에 정신을 행구는 힐링을 경험하게 됩니다.

comment

럼블피쉬 표 상큼한 모던 락이면서도 가사에서 힘을 얻는 건강식 같은 음악입니다. 곡 타이틀마다 칙칙하지 않고 포지티브 기운이 넘실거리며 흡족하게 충전 만땅을 경험하게 하죠.

들을 때마다 두근두근, 그때를 소환하는 방아쇠

하철호 대리 | 이수페타시스 연구팀

얼마 전에 비가 오는 걸 보면서 오래전에 들었던 신나는 노래가 생각나서 추천합니다.

예전 대학생 때 대구에서 하는 힙합페스티벌에 친구랑 놀러 갔었습니다. VMC, 하이라이트 레코즈, 빈지노, 자이언티, AOMG 등 많은 힙합 뮤지션이 와서 힙한 노래도 듣고 간식도 챙겨 먹으면서 페스티벌을 즐기고 있었는데 페스티벌 막바지에서 마지막 뮤지션으로 등장한 Just Music 레이블에서 부른 Rain Showers Remix를 들으면서 끝까지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후렴구인 “밖에 비가 온다 주룩주룩”을 떼창으로 반복하면서 뛰어노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하네요.

이제는 친구들과 시간도 맞추기 어려워 페스티벌에는 가지 못하지만 친구들과 놀러 가는 차 안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때에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곤 합니다.

comment

새로 나온 노래도 들어보고 인디 노래도 들어보고 타인들이 아닌 노래도 들어보면서 나만의 명곡을 찾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중에서 요즘 즐겨듣고 있는 노래를 추천합니다.

Rain Showers Remix

Just Music



나만의 추천 명곡 리스트



그의 바다
백예린



Romance
CHEEZE (치즈)



감아 (Feat. Crush)
로꼬



우리의 새벽은 낮보다 뜨겁다
세븐틴



Galaxy
태연



박신영 사원(이수시스템 사업혁신팀)



자주 보자, 항상 응원해

사회에 나와 더욱 애뜻해진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바로 대학교 학생회를 함께 했던 친구들인데요. 학교를 다니면서 지겹도록 만났을 당시에는 몰랐는데, 같이 들었던 전공 수업, 최애 식당 '이돈집'에서 먹었던 김치찌개, 목요일마다 학생회 회의가 끝나고 꼭 진행했던 뒤풀이까지! 요즘 따라 더 그립고,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들 바쁘다 보니,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는데요. 그래서인지 단체 채팅방이 한층 활발해졌습니다. 학교에서 매일 볼 때는 따로 채팅으로 전할 말이 없었는데, 요새는 하루 동안 있었던 시시콜콜한 일들을 채팅을 통해서라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주 보진 못하지만 진솔한 얘기도 잘 들어주고, 말도 안 되는 개그도 다 받아주는 친구들이 새삼 더 고마워지는 요즘입니다.

#한결같은 #친구들 #자주보자 #항상 #응원해 #♥



윤유리 사원(이수페타시스 공무팀 설비파트)



문어의 꿈

여러분들은 낚시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낚시가 취미인 상무님 덕분에 운 좋게 생애 처음으로 기회가 생겨 다녀왔습니다. 낚시는 처음 경험해 보는 터라 낚싯대를 다루는 것부터 미끼를 끼우는 것 등 익숙하지 않았지만 같이 갔던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금세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낚시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죠? 날씨도 덥고 처음 문어를 낚아 올리기까지 세 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그때 그 쾌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잡은 문어로 배 위에서 먹은 문어숙회와 문어라면은 최근에 먹은 음식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다들 양손 가득 문어를 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저는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문어 파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친구, 가족들과 낚시를 하러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신청곡 #문어의꿈 #안예은 #나는문어

독자 여러분의 사진을 받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 곁에 놓치지 가까운 행복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 속에 담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사보에 실리는 행운과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카카오톡 ID : creativekeym / 이메일 : hjkim1@isu.co.kr

유튜브의 바다에서 반짝이며 존재하기

가을밤 오디오북으로 깊어지는 시와 소설



점점 밤은 깊어지고 더불어 사색의 여백도 넉넉해질 이 즈음,
 창각세포를 관통해 심장 깊숙이 파고드는 채널을 골라본다.
 가을은 독서철? 그 상투성에 지레 시들해진다면,
 혹은 책 들 힘도 없는데 가슴은 허하다면 귀로 듣는 문학으로 고고성!!
 오디오북 영토에 동지 한번 제대로 틀 거라면 최소한 미덕은 깃털처럼 구름처럼 보드라운 것!
 귀를 대접해 주는 유튜브 5인 5색과 제법 친해졌듯한 예감이 든다.

깨고 싶지 않은 꿈, 책 읽어 주는 남자

따뜻한 목소리 현준

구독자 | 46.9만 명

남성의 목소리도 톡톡탁 정겨운 외할머니의 자장가를 닮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목소리가 순도 100% 수면유도제는 결코 아니다. 편안한 잠으로의 진입을 원했지만 목적을 벗어난 의외의 수확, 국내외 보석 같은 작품을 베갯머리에 놓아준다.

‘이 낯선 마음이 사랑일까’, ‘당신이라는 기적’ 등 장르 제한 없이 좋은 책을 엄선해 때로 삶을 관통하는 통찰로 채워진 철학 서적으로 힐링을, 때로는 어린 시절로 훌쩍 시간 여행을 떠난 깨고 싶지 않은 꿈인 듯 이상한 나라에 들어선 앨리스의 달달한 모험을 경험하게 해 준다.

미지근하지도 뜨겁지도 않은 36.5도 목소리, 다정한 삼촌 같은 딕션이 매력이다.

▶▶ 잘 읽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책을 운영자 자신의 시각으로 엄선해 바로 읽기에 들어가지 않고 고유한 시선으로 골라낸 유의미한 기준 등을 먼저 소개말로 알려준다. 그 순간부터 이미 힐링이 시작된다.



잃어버린 시심 회복, 책 읽어 주는 여자의 시 낭송

책 읽기 좋은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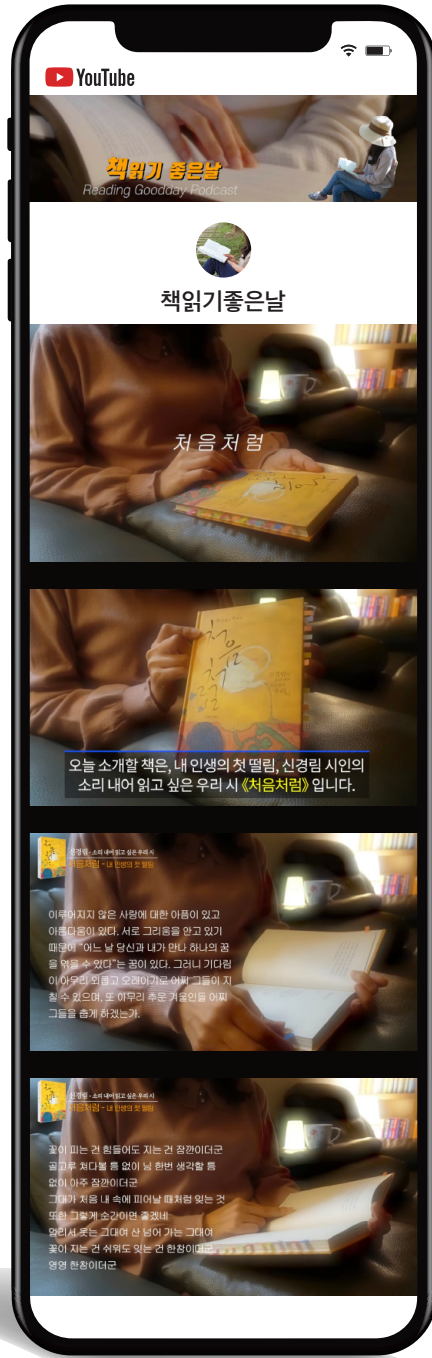
구독자 | 63.5만 명

내 인생의 첫 떨림, 신경림의 <소리 내어 읽고 싶은 우리 시> 원래 출판물은 현대 시인들의 대표 시 50편을 신경림 시인이 가려 뽑아 시인의 해설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예쁜 책이다.

시 낭송 위주로 구성된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지나치게 감상적 뽀이 들어가지 않아 비교적 울렁 거리는 멀미 없이 담백하게 스민다.

시의 영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대에 우리 시를 널리 알리고 잃어버린 시심 회복이라는 취지답게 일제 강점기 민족 수난을 노래한 시부터 7~80년대 저항 시인들의 먹먹 얼얼한 울림이 있는 시, 90년대 이후 개인의 시적 감성을 섬세하게 포착한 시들을 귀에 착 감기고 심금에 무늬를 남기는 낭송시다.

» 정신 차리고 듣지 않아도 스피커에 울려들듯 뇌에 심장에 채색되는 힘이 있다. 그러면 서 마음을 청소해 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심성이 음성으로 고스란히 담겨있다. 채널 홍수에서 착해지게 만들어주는 목소리와 책들이다.



귀를 통한 책의 위로, 기억 아련한 명작 순례

happy reader 북튜브

구독자 | 14.4만 명

달달, 고소, 울렁, 끄찍, 끄찍, 끄찍...
목하 유튜브 중독 세월

범람하는 비주얼에 머리는 멍 ~ 심금은 텅 ~ 이 유튜버의 재생 목록을 가만히 살펴다 보면 문득 친숙한 이의 서재에서 가만가만 책등을 손으로 짚어가며 읽고 있는 듯하다.

설록 홈즈 시리즈며 라이프 코칭 관련 서적까지 선정 도서를 꽤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아간 비행', '위대한 유산',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등 한때 읽어 본 적 있으나 아련한 명작들을 다시 접하며 심금 만땅 주유하고 내달릴 힘을 얻게 된다. 작품의 볼륨이 제법 되는 건 4~5부 정도로 말맞게 잘라 회당 할애 시간이 너무 지루하지 않게 배분해 두었다.

» 각자 고유한 섬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싶은 봉사정신을 마주친 달까 음성의 편안함은 물론 발음의 정확성으로 책의 내용이 눈으로 읽는 것보다 선명하게 전달된다.



끌림 있는 도서, 우월한 발음, 꿀잠은 ?!

▶ 잠잘 때 들려주는 영어 이야기

구독자 | 11만 명

코시국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구나.

유튜브 마을 외진 골목을 서성이며, 그 넓은 대양 한가운데서 넘실거리며 이렇게 황재한 느낌으로 감사가 솟는 경험도 특별할 터.

고막까지 부드럽게 당도하는 목소리와 발음은 분명 버터 알맞게 스민 네이티브 필인데 어라? 한국인이다.

작품 선정부터 친절하여 재생 목록에 담긴 콘텐츠가 두어 술갈 맛보면 혀에 짝 붙는 유동식의 미덕을 갖췄다. 잠잘 때 들려준다고 해서 어찌 바로 잠만 자겠는가. 나이 불문, 자녀들과 공유하기도 매우 유익한 채널이겠다.

다음은 이 채널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 목록이다.

The Happy Prince / The Last Le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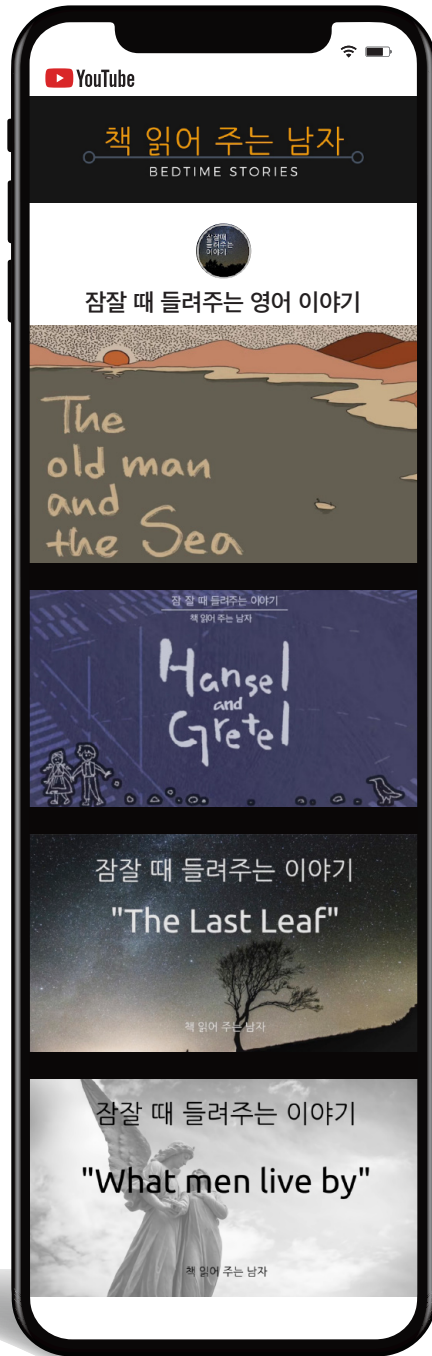
What Men Live by / The Last Lesson

The Little Prince / The Tale of Peter Rabbit

Hansel and Gretel / The Old Man and The Sea



▶ 동일 운영자의 한글소설 버전도 별도의 목록으로 리스트업! 책으로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텍스트도 링크, 심지어 퍼 올 수도 있다니 세심한 배려에 저절로 복을 빌어주게 된다.



귀로 듣는 낭만과 그림, 가을에 듣기 좋은 시 낭송

▶ 가을나그네

구독자 | 4.6만 명

복고문화는 자신이 거쳐 온 것들의 향수에 근거한다. 언젠가 들은 적 있는 아련한 목소리,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명DJ들이 전해주던 8~90년대 라디오 문화 복고를 통해 그때로부터 멀리 흘러 온 자신을 다시 만나는 경험을 한다.

난생 처음 듣는 N세대, S세대? 그대에게도 복고는 유효하다. 구슬처럼 굴러들어 꼭 박히는 시어들 DNA에 다이렉트로 노크하는 힘이 있으므로.

김세원 낭송 - 미안하다 (정호승詩)

오미희 낭송 - 내가 얼마나 더 외로워져야 (김병걸詩)

김미숙 낭송 - 우월한 상송 (이수익詩), 사랑법 (강은교詩)

이중환 낭송 - 가을날 (라이너 M. 릴케詩),

가을의 기도 (김남조詩)

김남주 낭송 - 이 가을에 나는 (자작시)

김혜수 낭송 - 가을 단상 (용혜원詩)

박원웅 낭송 - 불새 (송재詩), 낙엽의 노래 (홍윤숙詩)

박인희 낭송 - 달하나 별하나의 거리만큼 (자작시)



▶ 김세원의 낭송은 시대적 명품으로 회자되고 있으며 소수 구독자만 누리는 유튜버 BABDO도 주목할 만하다. 좋은 시의 기준은 독자의 기준에 달려있겠지만 가을이라는 계절 특성이 많이 담겨있다.





굴과 새우

스토리쉐프가 차려내는 식탁
보약 능가하는 바다의 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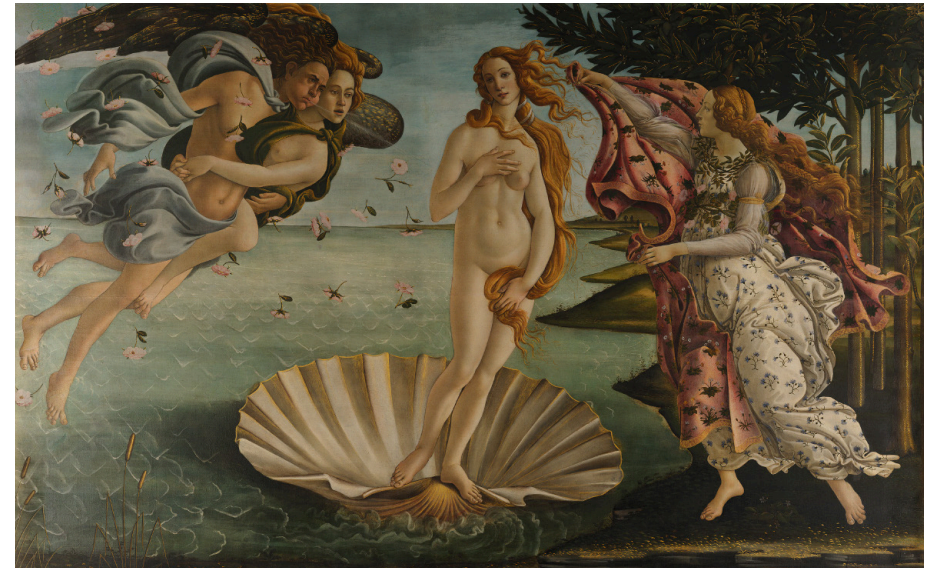
계절 바뀌면 몸도 맘도 변한다. 본격 가을 확연한 10월, 급 하강 기온 탓에 면역기능 저조하면 온 점막이 간질거리면서 마음의 간질거림을 수반할 때도 있다. 실오라기도 귀찮던 삼복 구간 소원했던 친구들이 궁금해지며 부쩍 그리움을 탄다. 이럴 줄 미리 알아 조물주가 마련해둔 보석급 환상 먹거리들, 보약 능가하게 몸도 맘도 회복될 터. 이맘때 입 호사로야 굴과 새우가 단연 으뜸이다. 그곳이 어디든 내달리기 앞서 한 접시 스토리도 챙겨두자. 사육을 벗어나도 존재감 뽐낼해질 비밀병기는 평소 장착된 스토리아닐까.

카사노바가 째한 굴 & 황제들이 꿈는 사랑의 묘약



굴을 논할 때 카사노바를 빼놓을 수 없다. 베니스의 귀족 출신으로 작가, 외교관 등을 거친 그는 청년 시절 성직자를 꿈꾼 똑똑한 인재였으나 역사에는 희대의 플레이보이로 남아있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무려 122명 여인을 상대했다고 실토했으며 작가 주디스 서머의 <카사노바와 여자>에서도 기상천외한 여성편력을 기록, 그 화려함의 원천을 굴로 밝히고 있다. 그는 모닝커피 대신 생굴 50개씩 먹으며 자신만의 고유한 능력을 길렀다고 한다.

로마 황제들 역시 내면의 힘을 기르기 위해 굴에 집착했다. 특히 영국산 굴을 고집해 많은 노예들의 피와 땀이 스민 굴을 사랑의 묘약으로 썼다. 낭설은 아닌 것이 그 뿌리는 그리스 로마신화에서 찾을 수 있다. 보티첼리가 남긴 세기의 명화 <비너스의 탄생>에 묘사된 아프로디테(비너스)는 신화 속 미의 여신으로 제우스가 아버지 우라노스의 성기를 잘라 던진 바닷속 거품에서 태어난다. 사랑의 신 에로스(큐피드)는 아프로디테의 아들로 영어 단어 중 최음제, 정력제를 뜻하는 Aphrodisiac이 바로 그 아프로디테를 어원으로 생겨났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생명의 근원에 힘을 실어준다는 믿음이 대를 이어 자리 잡은 유서 깊은 굴이다.



먹는 법도 다양각색, 동 서양 굴 요리

서양의 굴 요리도 다양하지만 레몬즙을 뿌린 생굴이 대표적이다. 레몬의 비타민C가 철분의 흡수를 돕고 타우린의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굴 요리는 굴무침, 굴밥, 굴전, 굴국, 굴찜, 굴깍두기, 굴튀김 등이며 저장용으로 굴젓이 있다. 조선시대 수리상에 관한 기록 중 석화 잡저라는 음식이 있는데 굴을 넣고 담근 석박지다.



레몬의 비타민C가 철분의 흡수를 돕고 타우린의 손실을 막아준다.

지역별로 다른 굴 맛, 남해 굴 서해 굴

굴의 고향 통영은 전국 굴 생산의 6~70%를 차지한다. 물속에 잠겨 플랑크톤을 충분히 섭취해 성장 속도가 빠르고 굵다. 타 지역에선 2~3년생을 먹는 것과 달리 1년생을 먹는 남해 및 통영 굴은 크면서 시원한 맛이 돌아 껍질째 구이나 찜으로 인기가 있다. 알이 굵어 생으로 먹을 때 굴향과즙이 입안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면서 팍 채우는 흐뭇함이 있다.

서해 굴은 갯벌에 깔아둔 돌에 붙어 자라기 때문에 갯굴이라고 한다. 조수 간만의 차로 물 밖에 드러난 시간이 길어 남해 굴보다 작지만, 맛과 향이 깊고 식감이 쫄깃하다. 찰지고 감칠맛이 진해 바다 맛의 지존이다. 서해 굴 대표 지역은 천수만 일대와 간월도다. 굴맛이 일품이라 조선 시대 진상품 어리굴젓의 원조 지역인 간월도에서는 아무 굴이나 캐지 않고 젓갈용으로 알맞은 3년생만 캔다. 곰삭은 맛이 기분 좋게 입안에 감도는 어리굴젓은 무시무시한 밥도둑이다.



대하축제가 열리는 태안 안면도 백사장항. 안면도 수산시장에서 신선한 대하 요리를 맛볼 수 있다.

1만 8천 후궁 한무제, 힘의 원천은 새우

중국의 한무제는 정력에 관한한 문자 그대로 킹 왕 짱 황제로 후궁만 1만 8천 명에 달했다. 전쟁 포로 여인들 중 미모를 가려 뽑아 후궁으로 삼았다. 그 많은 후궁들을 그토록 달갑고 흔쾌히 맞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인삼을 곁들인 새우요리다.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과 동행한 선원이 남긴 일기도 있다. 남태평양 통가 섬의 왕 라페 타마키 2세는 나이 80세 정도였는데 엄청나게 강한 정력의 소유자였다. 한 번도 같은 여인이 아닌 원주민 처녀들을 날마다 바꾸어 침실에 들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가 왕으로 밤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매일 먹는 새우요리였다고 기록했다.

오도리는 오돌오돌? No! 겉촉 속쫄 순살 새우 맛

10월은 제철 해산물로 독보적인 오도리(보리새우) 철이다. 한껏 살이 오른 제철은 9~10월이며, 12월까지도 탱탱하다. 이맘때 미식가들이 찾는 오도리란 촉을 촌다는 뜻의 일본 말로 살아서 팔딱이는 걸 말한다. 산 채로 내는 새우의 껍질을 한 마리씩 벗겨가며 초고추장이나 와사비에 찍어 먹는다. 새우 고유의 감칠맛에 첫 맛은 매끈 촉촉, 속 식감은 상하 어금니를 당기듯 쫄득하여 산 낙지 애호가들조차 비교를 거부한다.

새우 미식 가지가지

회, 초밥, 튀김, 구이, 국, 탕 등 어떻게 조리해도 맛있다. 마늘, 생강을 넣은 간장을 부어 간이 밴 간장새우는 꽃게장에 버금하는 고급 진 맛이다. 깔끔 담백 국물 맛에 육수용으로도 훌륭하여 조미용 분말 등 말린 새우도 인기 있다. 구이는 조리용기에 굵은소금을 깔고 새우를 겹치지 않게 가지런히 놓아 익히면 수분이 새우 살까지 스며, 쫄깃하고 부드럽다.

새우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 곳은 인천 소래포구의 새우 골목, 태안 안면도와 홍성 남당항 대하축제 등이 있다. 아직 코시국 와중이라면 길 미식 여행이 조심스럽다면 노랑진 수산시장이나 가락동의 어시장, 부산 자갈치 시장 등지에서 가을 새우의 진수를 진하게 누릴 수 있다. 감장철 새우젓 나들이라면 충남 논산의 강경과 강화를 꼽는다.



이수인의 심폐 확장 이슈 우주건설과 이수인의 꿈꿀 권리

초유의 팬데믹 장기화 불구, 지구는 어김없이 돌고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밀레니엄 전후 꾸준히 대두된 우주여행 및 우주건설이라는 이슈는 이제 더 이상 SF 스크린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누리호 및 다누리호 발사라는 야심찬 성과 이후 국가적 차원의 미래 청사진이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우리 이수인, 시력의 축수를 높이고 심폐를 한껏 넓혀 신인류를 향한 창을 열자. 신발 끈을 조이고 우주를 향한 긍정 에너지를 가슴 한 편에 탑재할 일이다. 가 본 적 없는 세계 앞에서 신개념 로드맵을 구상한다는 것 두근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주건설 이슈로부터 작은 칩 하나 가슴에 이식하는 계기를 위해 우주건설의 개괄적 현주소를 살펴본다.

글_ 이재향(칼럼니스트)



한국형 최초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최초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호'



(출처: 공공누리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공공저작물 이용)

K-Pop, K-Drama, K-Art ... 이젠 K-Space

2022년 대한민국 우주 역사의 쾌거라 할 이슈가 연달아 있었다. 6월엔 누리호, 8월에 다누리호 발사에 성공. 이것이 달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면 2023년부터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우주발사체 보유국으로 K-우주시대 막을 열고 있는 중이다.

테슬라의 CEO 엘런 머스크는 민간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를 설립하고 민간기업 최초로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 2026년까지 화성 우주관광과 함께 이주 계획을 밝혔으며, 최종 목표는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을 이주시키는 것이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2000년 설립한 민간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개발한 우주로켓 <뉴세퍼드>에 심혈을 기울이며 엘런 머스크와 경쟁 중이다.

우주 진출 프로젝트에 K 이니셜을 달고 세계를 누비게 될 21세기의 코리안, 지구인 누군가가 하는 일이면 나, 우리의 일이기도 하다.

몽상가는 공상하라, 과학자는 구현한다

우주 엘리베이터라는 엉뚱하고 신선한 발상은 SF 소설가 아서 클라크가 1979년에 발표한 소설 <천국의 샘- Foundation of Paradise>에서 러시아의 과학자 유리 아르추타노프의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최근 세계적 기업들이 적극 나서는 우주 엘리베이터도 그가 상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르추타노프는 1950년대에 이미 우주와 지구를 줄로 연결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정지궤도 위성을 이용해 지구 표면으로 케이블을 늘어뜨리고 반대편에 평형추를

매달아 중심을 잡는다는 원리다.

정지궤도란 지구상의 적도 위 약 3만 6천km 상공으로 중력과 원심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다. 이 때문에 물체에 추진력이 없어도 공중에 떠있을 수 있다.

NASA에선 이미 우주 엘리베이터가 실현 가능한 기술이라고 선언했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업체로 몸을 키운 구글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우주 엘리베이터 연구 개발에 나섰다. 그 뒤를 이어 일본의 5대 건설 업체에 속하는 기업 오바야시구미(大林組)는 지구와 우주기지를 잇는 우주 엘리베이터를 2050년까지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소재 탄소나노튜브, 탄력받는 우주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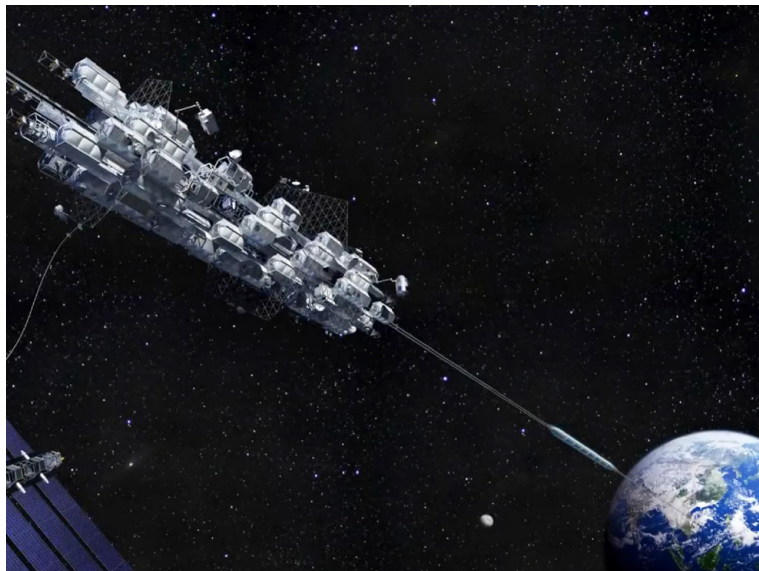
우주건설의 첫 관문이 될 항로와 운송수단을 합친 개념이랄 수 있는 우주 엘리베이터!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1991년 일본의 물리학자 이

이지마 스미오 박사가 엘리베이터를 끌어올리는 케이블용 신소재인 탄소나노튜브의 메커니즘을 발견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탄소 6개로 이뤄진 6각형들이 서로 연결되어 관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강도가 철강보다 100배나 높다. 관의 지름은 수십 나노미터(1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m,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 수준의 굵기)로, 실현될 경우 로켓은 kg당 약 2만 2천 달러에 달하는 운송비용을 2백 달러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케이블을 만들려면 나노 튜브를 수 m 단위로 길게 뽑아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야시구미사의 연구개발 담당 부장인 요지 이시카와에 의하면 현재 기술로는 3cm가 한계지만 2030년까지는 케이블을 만들 정도로 긴 나노 튜브를 제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우주 엘리베이터 상상도



(출처: 오바야시구미)

KICT, K-우주건설의 심장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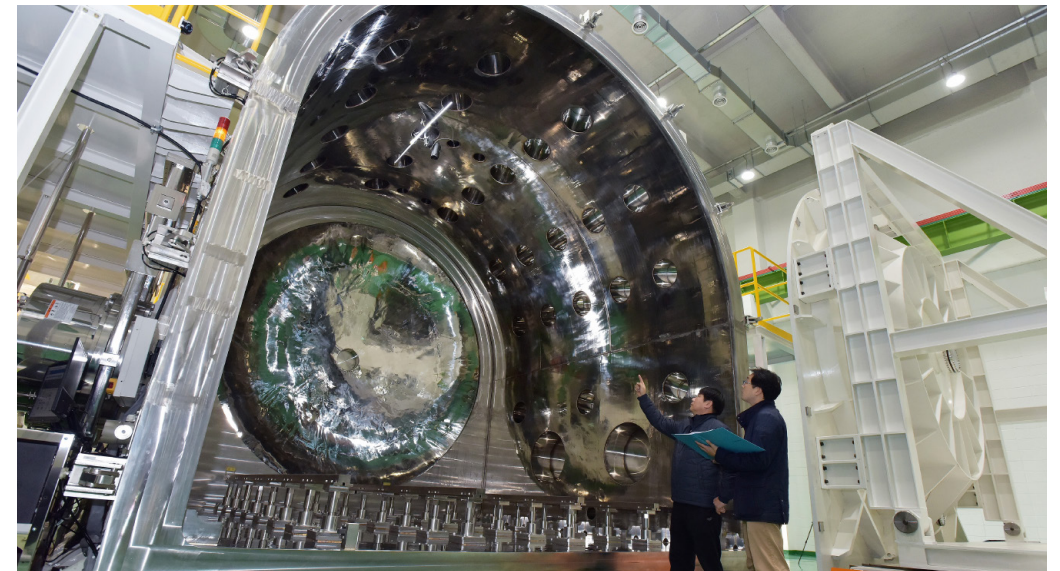
우주건설에 필수적인 3D 프린트의 활용기술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됐다. 지구에서 설계도만 전송하면 달 토양으로 우주기지용 건축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기술로 NASA에서 주최한 경진대회에서 3위로 입상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우주건설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성과를 낸 지반열진공챔버는 NASA에도 없는, 세계 최초, 최대의 검증 시설이다. 달 지상 탐사, 특히 우주건설 관련 분야는 KICT의 연구 성과물만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 <우주건설 원천기술 개발> 연구 프로젝트로 달 탐사선 '로버'를 이용한 영상 정보 분석, 지하 지층을 무반력으로 1m까지 시추할 수 있는 무인 시추기 개발 등이 있다. 달 토양과 유사한 복제흙, 월면토를 개발해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10cm 크기의 블록을 만들었으며 2025년에

는 화성에서의 건설 기술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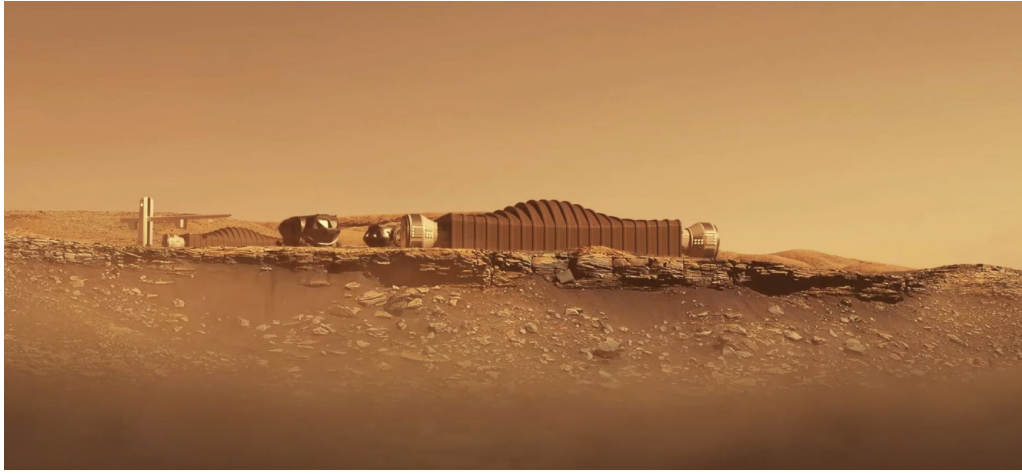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스마트 건설 기술 덕분이다. 이는 각종 건설 현장에 건설장비의 자동화 및 IT를 융합한 기술로 우주건설 같은 미래형 건설 기술은 로봇,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기술이 총동원된 첨단산업의 결정체다. 이러한 융합 연구를 위해 IT, 로봇, 화학 분야의 핵심 인재들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건설 영역을 달이나 화성까지 확장해 나가며 우주 강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달의 여신 이름을 딴 우주협정, 아르테미스

NASA에서는 달에 우주인을 보내 유인 기지를 건설하려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발표했다. 달 저궤도를 도는 <루너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유럽, 캐나다, 일본, UAE 등 여러 국제 우주 파트너들과 함께 거주 모듈, 실험 모듈, 달 탐사를 위한 전력 생산과



'인공 달'이라고 불리는 '지반 열 진공 챔버'는 월면토 20t 넣은 상태에서 고진공, 달의 온도를 구현했다. (출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ICTzine 2020 vol.1)



덴마크 건축설계사 B.I.G.(Bjarke Ingels Group)과 3D 프린팅 건설사 아이콘(ICON)의 합작품인 마스 둔 알파(Mars Dune Alpha) (출처: 아이콘)

통신 임무 등 우주시대를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아르테미스 협정서에 서명한 바 있다. 아르테미스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NASA의 파트너 국가로 규정하고 우주 공간의 평화적 활용, 응급 상황 시 상호 구조, 우주 자원의 활용, 상호 갈등 방지 등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NASA와 꾸준히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 협정으로 우주분야의 협력체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과학기술뿐 아니라 산업적 공생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내 우주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건축가들의 손발도 바빠진 우주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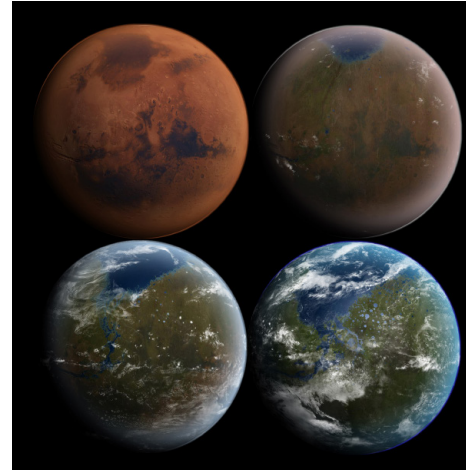
건축가 노만 포스터는 NASA의 지원을 받아 화성 표면에서 발견되는 암석지표토를 이용해 3D 프린팅한 화성 거주지 개념을 공개한 바 있다. 그 후 UAE 정부가 100년 후 화성도시 건설 계획으로 <마스2117>

이라는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2018년 건축가 비야르케 인겔스 그룹도 화성과학도시의 기본 모형을 선보인 뒤, UAE에 세계 최대 우주 시뮬레이션을 위한 캠퍼스를 건설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21년에는 NASA, ICON, 그리고 건축가 B.I.G.가 함께 <마스 둔 알파>라고 알려진 화성 거주지를 시험 출력하였다. B.I.G.가 설계한 이 건축물을 ICON의 건설 기술로 미국 휴스턴의 존슨 우주센터에서 제작한 것이다.

NASA에서는 이 실험이 2022년 가을에 시작될 화성 생명체 1년의 시뮬레이션 프로젝트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 주목할 것은 존 블링코우가 고안한 <게이트웨이 스페이스포트>라는 우주기지 건설 아이디어이다. 단순 스테이션이 아니라 민간재원 바탕의 호텔, 영화 광고 스튜디오 등 우주관광, 우주실험실, 그리고 중력을 벗어난 새로운 우주선 발사기지 등 복합적인 공간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화성 테라포밍 상상도 (출처: Daein Ballard)

화성지구화 프로젝트, 테라포밍

영화 <마션>에서 식물학자인 마크 와트니는 감자 재배에 성공한 장면에서 엄청나게 감격한다. 바로 테라포밍 후기 단계이다. 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행성 지구화 또는 행성 개조라는 뜻으로 지구 아닌 다른 행성과 위성, 기타 천체의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내용 출처: NASA)

우주와 천체에 관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오트 한 신의 영역을 인간이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다.

NASA의 5단계 계획에서 밝힌 480년은 지구 진화 기준 4억 년에 해당한다. 인류가 진화하면서 축적한 모든 유형무형의 자원을 총동원하여 다음 인류 주거지를 마련해 가는 일, 숙연하고 가치 있는 일임엔 분명하다. 몇 세대를 이어가며 인류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계주를 중단 없이 유지해야 할 암묵적 공조가 전제되어야 할 일이다.

지구 주거를 위협받고 있는 이 위태로운 세기에 다음 세대 인류를 위한 지고한 유산임을 가슴에 품고 가는 길이지 않은가. 그 따뜻함과 뜨거움 사이 어디쯤에서 우주건설의 실현 가능성은 무럭무럭 커나가기라.

나 자신이 누릴 것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열정을 바치는 일은 고매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물론 이 긴 여정에 민간 기업들이 그토록 열정을 보이는 데는 그들만의 계산법이 별도의 주머니에 숨겨져 있으리라는 건 다른 문제다. 영화에서 만나본 우주건설의 그 환상적 현상이 스크린을 튀어나와 인류의 현실이 되기까지 그 치열하고 다이내믹한 여정에 우리 이수인은 어떤 몫으로 가담하고 또 기여하게 될까?

» 흥미로운 우주관련 도서 및 영화

- 앤디 위어의 우주 3부작 (마션/아르테미스/프로젝트 헤일 메리) - 앤디 위어
- 지금 시작하는 우주 비즈니스 (유니버설 시대의 우주사용 설명서) - 가타야마 도시히로
- 엘런 머스크의 가치있는 상상 (테슬라부터 스페이스까지, 비즈니스의 판을 바꾸다) - 오세웅
- 영화 <마션> - 리들리 스콧 감독
- 영화 <애드 아스트라> - 제임스 그레이 감독

(참고 자료: SERICEO/내일의 건축, 천의영 교수(경기대 건축학과))



마틴 보이스 <It was Summer Not it's Autumn> 2003, Powder coated steel, wire, chain, altered series 7 Arne Jacobson Chairs, 300 x 375 cm

도시 풍경의 이면을 조명하는 도시의 수집가들

예술을 통한 일상의 '새로 보기'를 제안하는 이수그룹의 문화예술 공간 '스페이스 이수'에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수집가적 관점으로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버려지거나 방치되었던 도시의 조각과 파편을 수집하여,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한 도시 풍경의 다양한 이면을 조명하는 <도시의 수집가들>(가제) 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새로 보기>의 연금술, 일상 사물 예술화

이번 전시에서 소개하는 작가들은 사소한 것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더 나은 세계를 꿈꾸는 별난 수집가이자 평범한 일상적 사물을 아름다운 예술적 작품으로 변환시키는 연금술사이다. 작가들은 보잘것없고 심지어는 쓸모없어서 버려질 만큼 가치 없던 도시의 사물들을 발굴하고, 모으고, 해체하고, 재배열하고, 덧붙이고, 연결한 작업을 통해 익숙한 도시 환경을 생경한 풍경으로 뒤바꾼다.

이번 전시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자나 환기창 같은 친숙한 사물이나 건축 요소를 가져와서 변형과 조합을 통해 원래의 기능에서 벗어난 예술적 가치를 불어넣는 마틴 보이스(Martin Boyce, 스코틀랜드 1967년생), 이미 쓰고 버려진 수많은 병뚜껑들을 모으고, 구리 끈으로 엮어, 태피스트리처럼 변형시킨 조각 작품으로 황금빛으로 일렁이는 아름다운 풍경을 직조하는 엘 아나추이(EI Anatsui, 가나 1944년생)의 작품이 전시된다.



엘 아나추이 <DZI II> 2015, aluminium and copper wire, 290 x 331 cm

신문, 잡지나 광고물 같은 우리 주변의 대중적 시각물들을 잘라내고, 덧붙이고, 편집한 콜라주 작품으로 도시 풍경의 단면을 드러내는 신로 오타케 (Ohtake Shinro, 일본 1955년생)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도시의 수집가들>(가제)전은 작가들의 독특한 수집품들을 찬찬히 살펴보며 우리 주변을 낯설지만 풍요로운 시각으로 '새로 보기' 할 수 있기를 제안한다.



신로 오타케 <Time Memory 14> 2012, oil, colorant, ink, ink-jet, photographs, glue, printed matter, wood, copy paper, Japanese paper, cheesecloth, rice paper, wrapping paper, wrapping tape, cardboard and canvas on wooden panel, 225 x 220 x 11.5 cm

컬러링 테라피 갤러리

이수가족이 정성껏 채색해 주신 컬러링 응모작을 소개합니다.
기나긴 집콕 생활의 작은 행복, 컬러링 테라피 코너에 앞으로도 많이 응모해 주세요.



김규리 님
(이수애피스 공정파트
김수현 대리 동생)



김은서 님
(이수화학 L12S Demo Plant TFT
김민우 과장 자녀)



박성택 대리
(이수화학 프로젝트팀)



박종필 부장
(이수건설 설계팀)



박혜원 님
(이수애피스 QA팀
박상현 자녀)



윤창득 기정
(이수페타시스 품질관리팀 aoi)



이재일 기정
(이수페타시스 생산1팀 생산파트)



최혜인 님
(이수페타시스 경영지원팀
최정호 부장 자녀)



한도담 님
(이수화학 기술팀
한광수 부장 자녀)

이수가족을 위한 아트 힐링 컬러링 테라피

컬러링 북은 선으로 그린 그림이나 도안을 모아 엮은 책으로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각자 원하는 색깔로 그림을 채워가노라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다스려 정서적인 안정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보 <ISU>는 마음의 안정과 힐링을 선사할 컬러링 코너를 연재합니다. 컬러링을 마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모 방법



컬러링을 한다



인증샷을 찍는다



사진을 전송한다

보내실 곳 | 카카오톡 ID : creativekeym / 이메일 : hjkim1@isu.co.kr

2022년 여름호 당첨자 (※가나다순)

- 김규리 님(이수앱지스 공정파트 김수현 대리 동생)
- 김은서 님(이수화학 LI2S Demo Plant TFT 김민우 과장 자녀)
- 박성택 대리(이수화학 프로젝트팀)
- 박종필 부장(이수건설 설계팀)
- 박혜원 님(이수앱지스 QA팀 박상현 자녀)
- 윤창득 기정(이수페타시스 품질관리팀 aoi)
- 이재일 기정(이수페타시스 생산1팀 생산1파트)
- 최혜인 님(이수페타시스 경영지원팀 최정호 부장 자녀)
- 한도담 님(이수화학 기술팀 한광수 부장 자녀)

사보 ISU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솔한 생각과 마음이 담긴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자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겨울호 원고 마감은 12월 15일입니다.



WORKUP

클라우드 HR솔루션



워크업 홈페이지



워크업 미리보기



ISU 이수시스템

02.6494.2998 | www.workup.plus